

원희룡 장관 “국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강도 높은 쇄신”

- 22일 산하기관 감사부서장 회의 주재... 하반기 반부패·청렴 정책 논의 -

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22일(금) 오전 8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감사부서장 회의를 주재하였다.

- 이번 회의는 국토교통 각 분야 전반의 카르텔을 혁파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릴레이 회의 중 ^{1차}소속기관 행동강령책임관, ^{2차}건설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회의에 이은 3차* 회의로, 한국토지주택공사, 한국철도공사 등 22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감사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.

* (1차) 청렴 등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행동강령책임관 회의(8.7),
(2차)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한 건설현장 전문가 회의(9.8)

-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주요 감찰사례 및 우수 민원사례 등을 공유하고, 하반기 반부패·청렴 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.

□ 원 장관은 ‘민주사회를 무너뜨리는 내부 요인은 부패한 카르텔이니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 달라’는 대통령의 말씀을 전하면서,

- “각 분야의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고 낡은 관행을 해소하는데 앞장 서 달라”고 당부하였다.

- 이어 “공기업의 존재 이유는 국민에 있다”고 강조하며, 주택, 도로, 철도, 항공, 안전관리 등 모든 분야에서 “국민의 신뢰와 공정성 회복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강도 높은 쇄신을 해 나갈 것”을 주문하였다.

□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“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불명예스러운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”면서,

- “갑질, 성비위,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는 조직 전반에 대한 국민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며 기강해이로 이어질 수 있으니 구성원들의 부패행위 예방과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2023. 9. 22.

국토교통부 대변인